

##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골성서공회본>으로 —<sup>1)</sup>

안교성\*

### 1. 서론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연합 기관이며, 그 사역은 대한성서공회 소개에도 나타나듯이 크게 “번역, 출판, 반포”의 세 가지이다.<sup>2)</sup> 본 논문은 이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사역이 구공산권 붕괴 이후 새로운 선교지로 부상했던 몽골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현대 몽골어 성경 중 하나로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몽골성서공회본>(Mongolian Union Bible Society Version, 이하 MUBS본)이 원래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Version, 이하 MBTC본)이었기에, 어떻게 MBTC본이 MUBS본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sup>3)</sup>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회사 교수. [ksa@puts.ac.kr](mailto:ksa@puts.ac.kr).

- 1) 본 논문은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필자는 본 논문을 심사하면서 유익한 조언들을 해주신 심사 위원들께 감사를 표한다.
- 2) “대한성서공회 소개”, [http://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1\\_1](http://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1_1) (2018. 1. 22.).
- 3) <몽골성서공회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舊) 몽골성서공회본>(The Bible Society of Mongolia Vers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몽골성서공회 초기에 사역했던 영국 선교사 존 기븐스(John Gibbens)가 중심이 되어 번역하여 1990년 <신약전서>로 출간한 역본이다. 기븐스가 몽골성서공회 사역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유사 단체를 설립하면서 몽골성서공회가 일시 폐쇄되는 과정에서, <구 몽골성서공회본>은 <몽골성서공회본>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했다. 필자는 <구 몽골성서공회본>을, 혼동을 막기 위하여 역본의 성격에 따라 <확장본>(Amplified Version)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둘째는 몽골 선교현장에서 성경 번역을 위한 연합 기관으로 설립된 몽골성경번역위원회가 번역하여 출간한 <신약전서>(1996), <신구약전서>(2000)이다. 그런데 동 위원회가 몽골 기독교의 연합을 위하여 본 역본을 재건된 몽골

사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다수 있고,<sup>4)</sup> 「성경원문연구」에도 여러 논문이 게재되었다.<sup>5)</sup>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성경 번역의 역사, 신명 등 다양한 면들을 다뤘지만, 번역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MUBS본의 전신인 MBTC본, 특히 그중에서도 <신약전서> 번역의 실재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이 연구 범위를 MBTC본 <신약전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역이었고, MBTC본 <신구약전서>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주로 1차 사료 및 관련자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성찰하는 일종의 비판적 참여자의 보고서 성격을 지닌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자체가 또 다른 1차 사료가 되는 동시에 사례 연구가 되는 셈인데, 장차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주축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성경 번역이 중요한 사역으로 부상했다.<sup>6)</sup>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

---

성서공회에 이양함으로써 새로운 <몽골성서공회본>(MUBS본)이 되었다. 따라서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MBTC본)은 이중적으로 ‘일치본’의 성격을 지닌다. 첫째, 최초의 번역 과정이 일치를 위하여 연합 사역으로 이뤄졌다. 둘째, 몽골 기독교의 일치를 위하여 과감하게 권리를 이양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성서공회는 원래의 몽골성서공회의 역본이 아닌 타기관 역본을 취하는 역사적 모순을 경험했다. 물론 MBTC본과 MUBS본이 일치본이라는 의미는 현재 몽골에서 그것들만 배타적으로 사용된다는 확실적인 의미는 아니다.

한편 몽골성서공회의 명칭을 둘러싸고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몽골성서공회의 명칭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통상 국가별 성서공회의 명칭은 ‘국가명’에 ‘성서공회’라는 명칭을 더해서 만든다. 따라서 몽골성서공회의 영어 명칭은 Mongolian Bible Society 혹은 The Bible Society of/in Mongolia가 된다. 몽골성서공회는 처음에는 주로 Mongolian Bible Society(MBS)라는 영어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브스 중심의 유사 단체가 The Bible Society of Mongolia(BSM)라는 영어 명칭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된 몽골성서공회는 구별을 위해 부득이 Mongolian Union Bible Society(MUBS)라는 영어 명칭을 사용한다. 국가별 성서공회의 영어 명칭에 Union이란 단어가 드러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 4)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성경 번역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 기념 출판위원회 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27-145; 마크 마르달거르, “몽골어 성경 풀이역(1990년) 및 축자역(2004년) 번역 평가: 욱기 1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Hugh P. Kemp, *To Feel the Spirit: A History of the Mongolian Bible* (booklet; Auckland, New Zealand: [personal publication], 1997).
- 5) 고은이, “내몽골의 하나님 용어”, 「성경원문연구」 18 (2006), 130-141; 민영진, “Bible Translations for Asian Audiences: Nestorian Experiment in T’ang Dynasty China and Mongolian Equivalents for Deity”, 「성경원문연구」 18 (2006), 98-113; 이영철,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 「성경원문연구」 33 (2013), 77-91;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안중환 역, 「성경원문연구」 19 (2006), 200-214.
- 6) 한동대학교 내의 아릴락(Arilac, [사]아시아 언어 문화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arilac.org> (2018. 1. 22.).

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논쟁이나 통상적인 작업은 생략하고, 몽골어 성경 번역의 특성에 집중하고자 한다.<sup>7)</sup> 둘째, 개신교와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번역은 해당 사역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의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번역 과정에 집중하되, 전반적인 맥락도 다룰 것이다.

서론을 마치기 전에 간단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사료의 수집과 보관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명 및 일자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제약이 많고, 또한 선교 현장의 제한 등의 이유가 있어서, 단체나 인물을 일일이 적시하지 못했다. 둘째, 가독성을 위하여 몽골어는 라틴 알파벳으로 전사하여 덧붙였다.<sup>8)</sup>

## 2. 성경 번역의 시작

### 2.1. 새로운 성경 번역의 필요성

현대 몽골 선교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행히 당시 <구(舊) 몽골성서공회본>(The Bible Society of Mongolia Version, 이하 <확장본>[Amplified Version])이 출간되어, 선교에 사용될 수 있었다. 이 <확장본>은 의미전달역의 과도한 형태를 띠었다. 몽골 선교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선교적·교회적 필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새로운 성경 번역 특히 축자역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들이 대다수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대부분 축자역 성경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 성경에 대한 불만이 늘었고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둘째,

7) 필자 역시 “성경 번역 과정 기록을 중시하는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막상 사역 현장에서 분주한 가운데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였다. 이것은 만시지탄의 일이라, 뒤늦게나마 본 논문을 통해 성경 번역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143.

8) 본 논문은 몽골어를 편의 상 학문적 전사 방법이 아니라 음성 부호 없이 라틴 알파벳만을 사용하는 통속적 전사 방법으로 전사한다. 현재 몽골어의 영어 전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특히 고유명사는 예외가 많지만, 본 논문은 가장 간단한 것을 사용하되, 자주 사용되는 다른 전사 방법은 해당 알파벳 뒤 대괄호 안에 표기한다. a/a, б/b, в/v, г/g, д/d, e/ye, ё/yo, ж/j[dzh], з/z[dz], и/i, й/i[y, j], к/k, л/l, м/m, н/n, о/o, ө/oe[ö, ou], п/p, р/r, с/s, т/t, у/u, ү/ue[ü, oo], ф/f, x/kh[h], ц/ts, ч/ch, ш/sh, ш/shch, ь/표기 안함[i], ы/i[y] ы/표기 안함[i], э/e, ю/yo, я/ya. 독일어의 전사는 다음을 볼 것. Hans-Peter Vietze, *Wörterbuch Mongolisch-Deutsch* (Leipzig: Langenscheidt, 1988), 16-17.

몽골은 공산주의 시절 공산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외국 경험이 있는 몽골인이 많았다. 이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어 성경 가령 러시아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확장본>이 여러 역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사와 현지인 양측에서 새로운 성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3년 몽골 기독교인 수가 3천 명 남짓한 상황에서, 자그마치 10여개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우후죽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시도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시도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문제였다. 실패한다면 선교 자원 — 인적·물적 자원 — 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성공한다면 몽골은 전체 인구(3백만 명 정도) 중 기독교 인구(3천 명 정도)가 0.1%에 불과한 소규모 개척 선교 지역이었기에, 여러 개의 성경이 공존한다면 선교적·교회적 혼란은 극심할 것이었다. 성경 역본의 복수화(pluralism)는 양면이 있다. 이 현상은 독자가 다양한 역본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동시에 교회의 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역사가 유구하고 다양한 역본이 존재하는 영어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는데,<sup>9)</sup> 하물며 신생 선교지요 공산권 붕괴 이후 사회적 혼란과 만성적 빈곤이 확산된 몽골에서 기본 용어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질 소지가 있었고, 대다수 선교사들과 몽골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점을 우려했다.

## 2.2. 공개 모임과 몽골성경번역위원회의 탄생 및 발전

당시 독일 선교사 중심의 규모가 가장 큰 성경 번역 프로젝트 팀이 준비 과정에서 기본 용어집 작성을 추진했고, 필자가 그 일을 의뢰받았다. 필자는 이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즉 기본 용어집 작성에 상당 기간이 필요한 만큼, 그 동안 선교사와 몽골 기독교인 전체가 공개 모임을 가져 번역 사역의 연합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93년 ‘몽골성경번역위원회’라는 선교 현장에서 결성된 일종의 임시(ad hoc) 연합 기관(consortium)이 탄생했고, 역량을 결집하여 단기간 내에 MBTC본을 완간할 수 있었다. 즉 <신약전서>를 만 3년(1993-1996년) 후에, <신구약전서>를 만 7년(1993-2000년) 후에 출간했다. 또한 <신약전서>와 <신구약전서> 사이에 일부 구약 번역본을 모은 <구약>[1차분]을 만

9) Cecil Hargreaves, *A Translator's Freedom: Modern English Bibles and Their Languag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69-76.

5년(1993-1998년) 후에 출간했다. <구약>[1차분]에 포함된 것은 총 14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시편, 잠언, 이사야, 다니엘, 요엘, 요나, 하박국 등이다. 비록 일부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대다수 선교사들과 몽골 기독교인들은 번역, 출판, 반포의 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였고, 그 결과 MBTC본은 출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몽골 교회의 실질적인 공인본이 되었다.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번역을 개시하기에 앞서 다른 번역 집단과 공동 개정 혹은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첫째,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단행본으로 이미 발간된 <확장본>(신약전서)의 개정 가능성도 검토하였고, 필자 자신이 직접 <확장본>측과 의사 타진을 시도한 바 있지만, <확장본>측에서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신명(神名)이 문제였다. 흔히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신명 논쟁의 틀을 적용하여, 몽골성경번역위원회와 <확장본>측이 신명으로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적대적인 역본들이 나왔다는 식의 주장이 있고 그런 주장이 재생산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1996년 MBTC본 <신약전서> 출간에 앞서, 만일 신명이 문제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신명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확정하되 신명은 비워두어 각자 입장에 따라 채워 넣도록 하는 복수(複數) 출간 가능성까지 검토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당시로서 가장 이상적인 신명을 추구했던 것이지 특정 신명을 고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둘째,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쪽복음이나 원고 등 아직 출간 이전 단계에 있었던 역본들에 대해서도 공동 개정 의사를 타진했다. 이들 가운데는 공동 개정을 거부한 측도, 찬성한 측도 있었다.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아직 원고 상태의 역본을 추진하던 팀에 대하여, MBTC본을 위한 공동 개정과 해당 역본의 공동 번역이나 번역 지원을 건의했으나 거부되었다. 또한 쪽복음을 번역한 번역 팀에 대하여, MBTC본 출간 직전에 해당 쪽복음을 공동 개정하여 포함시키자고 거듭 건의했으나 거부되었다. 셋째, 독자적인 역본을 준비하던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동 개정 및 번역에 동참하여, MBTC본 <신약전서> 조기 출간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참가자 수도 많았고, 번역 분량도 많았다.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 단체별(특히 학원 선교를 목표로 한 단체) 혹은 개인별(특히 후에 타국으로 선교지를 옮긴 여성 선교사) 다양한 형태로 동참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로, 연합 사역 형태로 출발한 MBTC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몽골 기독교의 일치를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MUBS본으로 변모하면

서, 마침내 몽골 기독교의 공식적인 공인본이 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이후 새로운 MUBS본의 개정 작업들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BTC본이 상당히 건실한 번역이었음이 확인되었다.<sup>10)</sup>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출범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종의 ‘작업용 역본’(working version)을 목표로 했는데, MBTC본이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음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성경 번역 관련 학위를 취득한 바야르ماغ나이(Б. Баярмагнай[b. bayarmagnai])가 몽골성서공회의 번역 책임을 맡음에 따라, 현지인이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새로운 역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역본이 완성된다면, 몽골 기독교는 선교사 혹은 선교사와 현지인에 의한 번역(1단계), 현지인에 의한 개정(2단계), 현지인이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번역(3단계) 등 성경 번역의 전 과정이 완료되는 셈이다.<sup>11)</sup>

### 2.3. 기본 용어집 작성 및 번역 준비 과정

몽골은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 이전에 이미 장구한 성경 번역의 역사가 있다.<sup>12)</sup> 세계 선교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몽골은 상대적으로 성경 번역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몽골어 성경의 경우도, <신약전서> 단행본만 해도 MBTC본(1996) 이외에, <확장본>(1990), <회복역본>(Recovery Version, 1993),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Today’s Mongolian Version, 1998) 등 다양하다.<sup>13)</sup> 이런 역본들 가운데 MBTC본이 주류 성경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가령 <확장본>은 번역자와 번역 기관의 업무 성

10) 현대 몽골어 성경 특히 MUBS본이 된 MBTC본의 개정 작업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Б. Баярмагнай[b. bayarmagnai], “Ариун Библийн Орчуулга Засварын Тайлбар Бичиг (ariun bibliin orchuulga zasvarin tailbar bichig)”(성경 번역 개정에 대한 설명문) (미간행 소고, 2014).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는 신학과(Faculty of Divinity)와 동양 및 근동학과(Faculty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에서 구약 관련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바야르ماغ나이는 후자에서 공부하였다.

11) 1단계에서 현지인이 번역 주도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한국 교회의 이수정의 경우이다. 2단계에서 선교사와 현지인이 공동 개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한국 교회의 『개역』의 경우이다. 이수정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볼 것.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4 (1971), 148-167; 이만열,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한국교회사의 의미”, 『한국기독교와 역사』 43 (2015.9.), 5-21. 한국어 성경 개정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12) 기존 몽골 성경 번역 역사는 다음 논문을 볼 것.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13) 현대 몽골어 성경의 다양한 역본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볼 것.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133-136. 거칠게 말해, <확장본>은 ‘Living Bible’을, <회복역본>은 ‘Recovery Version’을, MBTC본은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을,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Today’s English Version’을 번역 모델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격이 변하면서 역본의 위상도 낮아졌다. <회복역본>은 번역을 담당했던 선교기관이 이단 시비와 결부되었고 사역의 중심을 타국으로 옮기면서 역본의 사용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취지와는 달리 현지인들로부터 별 호응이 없어 거의 보급되지 못했다.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기본 용어집을 만들면서, 기존 몽골어 역본의 용어들을 비교하였고, 몽골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성경 즉 영어 성경, 러시아어 성경, 독일어 성경의 용어들도 비교하였다. 여러 작업을 거쳐 1994년 11월에는 100여개의 기본 용어가 정리되었고, 번역의 기초가 되었다.<sup>14)</sup> 이런 용어 선정 작업 자체가 성경 번역 사역의 연합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용어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 2.3.1. 전통문화와 용어 선정

기독교와 전통문화 특히 전통 종교와의 관계는 성경 번역의 고전적인 문제이다. 이중에서도 신명은 대표적인 문제인데, 현대 몽골어 성경의 신명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sup>15)</sup> 몽골의 경우, 기독교와 전통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무교(巫敎, Shamanism) 및 불교(佛敎)가 문제시되었다. 이것은 번역 상, 친밀화와 이질화(domesticating and foreignizing)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sup>16)</sup> 전자는 익숙한 기존 용어를 채택하되 부정적

14) “Terminology List” (Unpublished manuscript, 1994. 11.). 본 목록은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MBTC본[예정]과 <확장본>) 등 4가지 용어를 비교했는데, 5쪽에 걸쳐 총 103개를 정리하였다. 영어를 기준할 때, 당시 확정된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다. adoption, almighty, altar, angel, anoint, apostle, appoint, ark (Noah’s), ark (of covenant), authority, baptism, baptize, believe, bless, brothers, Christ, christian, church, circumcise, circumcision, cleanse, command (1쪽); commandment, condemnation, confess, conscience, convert, covenant, create, cross, crucify, curse, demon, devil, disciple, doctrine (teaching), elect, eternal life, evangelist, evil, fast, feast, fellowship, flesh (2쪽); follow, forgive, fulfill, Gentiles, gift, glorify, glory, God, gospel, grace, Hades/Sheol, heaven, hell, Holy Spirit, honor, hope (n), hope (v), judge, justify, kingdom, law, life (ζωη) (3쪽); life (βιος), Lord, LORD (Jehovah), mercy, miracle (wonders), neighbor, Paradise, powers, pray, preach, priest, prophecy, prophesy, prophet, punishment, purify, ransom, reconcile, redeem, repent, resurrect (sic., resurrect), reveal, righteousness, saints (4쪽); sanctify, signs, sin (n), sin (v), Son of God, Son of man, soul, spirit, tempt, testify (witness), tongue, world, worship (5쪽).

15) 각주5의 고은이와 민영진의 논문을 볼 것. 몽골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Б. Дүгэрмаа(b. duegermaa), *Эзний Монгол Нэрс(ezeniy mongol ners)* (n.p., 2008). 한국, 중국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볼 것. Sung Ho Ahn, “The Term Question in Korea 1882-1911, and its Chinese Roots: A Study in Continuity and Diverg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2011). 일본의 경우는 다음 논문을 볼 것. 황예렘,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 — 중국 초기 개신교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 『성경원문연구』 36 (2015. 4.), 231-251.

16) Umberto Eco, *Experiences in Transl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0), 22-25.

인 연상을 피하는 것이고, 후자는 낯선 용어를 채택(혹은 조어)하여 부정적인 연상을 아예 막는 것이다.<sup>17)</sup> 즉 기존 용어에 기독교의 의미를 부가하거나 새로운 용어의 의미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단어 의미의 확장이라는 ‘어휘적인 역사’(lexical history)가 생성된다.

현대 몽골어 성경의 용어 선정은 차용, 전용, 조어, 전사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기존 종교 용어를 차용할 경우, 기존 종교 용어는 대부분 전통 종교의 특정 종교 행위를 연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적 의미를 설명하고 덧붙이게 된다. 이 경우, 단어는 같되 의미의 확장이 발생한다. 혹은 아예 일상용어를 전용하여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는데, 역시 새로운 기독교적 의미를 설명하고 덧붙이게 된다. 이 경우, 단어는 같되 용법의 확장이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조어를 하거나(주로 복합어를 통해서), 단순한 원어의 전사(발음 중심으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몽골어 성경 중에는 다른 역본이 일상 용어를 채택한 것을 종교 용어로 바꾸거나, 반대로 종교 용어를 채택한 것을 일상 용어로 바꾼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용어 목록에 의하면, <확장본>은 일상 용어를 선호하고, MBTC본은 종교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sup>18)</sup> 가령 축복이란 단어에 대하여 전자는 “ивээх”(iveekh)를, 후자는 “ерөөх”(yeroeokh)를 사용하였고, 기도라는 단어에 대하여 전자는 “Ертөнцийн Эзэнтэй ярих”(yertoentsiin ezentei yarikh)를, 후자는 “залбирах”(zalbirakh)를 사용하였다.

### 2.3.2. 기타 기독교 용어와 용어 선정

성경 번역과 기타 기독교 문서 번역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 몽골 선교 초기에 성경 이외에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번역되었다. 새로운 성경 번역을 시도하면서, 핵심 교리의 용어 검토도 이뤄졌다. 그런데 핵심 교리는 암송용으로 사용되었고 자연스럽게 관련 용어들이 몽골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

17) 극단적인 경우는 원어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전사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일본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MBTC본도 세례를 “baptism”으로 전사하여 원어 그대로를 사용했다. 여기에는 일본어 성경 번역 역사와 일본 선교사의 신앙적 배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논문을 볼 것. 이영철,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 84.

18) 타카시도 <확장본>에 대하여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특징으로는 우선, 종교 언어 신학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208.



로 대체하기가 어려웠다. 즉 번역 용어의 ‘관성’이 작용하였다.<sup>19)</sup> 가령 몽골 교회가 대다수 MBTC본을 사용하고 MBTC본의 용어를 따르면서도, 사도 신경의 경우는 신명을 MBTC본의 “Бурхан”(burkhan)이 아닌 <확장본>의 “Ертөнцийн Эзэн”(yertoentsiin ezen)을 계속 사용했다. 즉 핵심 교리의 용어가 성경 용어만큼 영향력이 있고, 성경 용어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양자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핵심 교리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3.3. 이데올로기와 용어 선정

성경 번역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도 중요하다. 현대 몽골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던 당시, 몽골은 동구공산권 붕괴와 발맞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몽골은 러시아의 뒤를 이어 1921년 (혹은 1924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약 70년에 걸친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역사를 지냈다. 따라서 몽골 단어 중 많은 것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사용되었고, 이데올로기를 연상시켰다. 가령 공산주의 시절에 영광이라는 뜻을 지닌 “алдар”(aldar)라는 단어는 종교적 의미보다 공산주의 영웅을 찬양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사용되었다.<sup>20)</sup> 이런 이데올로기적 연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 선교사들이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 출신이라 해결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주로 공산주의 경험을 지닌 몽골 기독교인들의 견해가 반영되었다.<sup>21)</sup>

### 2.3.4. 고유 명사와 용어 선정

또 다른 문제는 고유 명사의 확정이었다. 기본 용어집에서 모든 고유 명사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부 고유 명사는 성경 번역의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엄밀히 말해서 고유 명사의 경우는 번역보다는 전사(transliteration, 혹은 음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다수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고유 명사 전사 법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번역이 진

19) 유사한 문제가 한국 교회의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과정에 나타난 바 있다.

20) 가령 “영웅들에게 영원한 영광을!”이란 문장은 몽골어로 “Баатруудын мөнхийн яруу алдар бадартугай”(baatruudin moenxiin yaruu aldar badartugay)이다. 여병무, 강선화 편저, 『한몽사전』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대학출판부, 2000), 331.

21) 선교사들은 구 공산권 출신은 매우 드물었고, 예외적으로 구(舊) 동독 출신 독일 선교사가 신학교 분야에 사역한 바 있다.

행되었다.<sup>22)</sup> 그 결과 이 분야에서 MBTC본을 비롯하여 현대 몽골어 성경 역본들 가운데 혼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부수적인 일이지만 고유 명사 전사 과정에 외국어 성경의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MBTC본을 비롯한 현대 몽골어 성경 역본과 외국어 성경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명 다음으로 중요한 용어인 성자(聖子)에 대해 살펴보자. ‘예수 그리스도’(Ιησους Χριστος)는 고유 명사인 동시에 핵심 용어이다. 한국어 성경의 경우, 대부분 인명은 주격 어미에 나오는 자음이 생략되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 몽골어 성경의 경우, <확장본>은 “Есүс-Христ”(yesues-xhrist)로, <회복역본>과 MBTC본은 “Есүс Христ”(yesues xhrist)로,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Есүс Христос”(yesus khristos)로 표기한다.<sup>23)</sup>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어 성경은 “Иисус Христос”(iisus khristos)이다. <확장본>, <회복역본>, MBTC본은 러시아어 성경의 철자보다는 음가를 중시하면서, 러시아어의 y가 철자는 몽골어 y와 같지만 음가는 몽골어의 모음 조화에 따라 몽골어 y와 y의 사이에 속하거나 후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고 “Есүс”(yesues)로 표기하였다. 이에 반해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러시아어 성경의 철자를 따라 “Есүс”(yesus)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이런 표기의 이유를 모르는 몽골인의 경우, 예수에 대한 발음을 달리 할 수 있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몽골어도 러시아어나 그리스어 처럼(모두 키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 전설모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예수’의 첫 모음은 러시아어 성경보다는 원어 성경을 따랐고, 이것은 현대 몽골어 성경이 번역 상, 특정 역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다양한 모색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을 비롯하여 현대 몽골어 성경이 러시아어 성경을 따르는 경향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어 성경은 그리스

22) 필자는 1990년대 후반 성경 번역 과정에서 현대 몽골어 성경의 고유 명사 표기에 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한국어 성경의 사례에 대해서 한국의 성서학자 및 성경 번역학자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시도했는데, 일관된 원칙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어 성경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특히 성경 번역 원칙이 확정되기 전에 번역된 한국어 성경 초기 역본의 경우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성경과 초기 한국어 성경의 영향사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논문을 볼 것.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 『성경원문연구』 11 (2002), 68-89. 또한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76-199.

23) MBTC본의 1994년 11월 용어 목록은 “Христос”(khristos)를 채택했으나, 이후 “Христ”(khrist)로 변경되었다.

어 ‘θ’(th[θ])를 ‘φ’(ph/f)로 전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러시아어 성경은 ‘마태복음’(κατα Μαθθαίον)을 “от Матфея”(ot matfeyea)로 표기하는데,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이 “Маффайосын”(maffaiosin)으로 표기하였다.<sup>24)</sup> 한편 <확장본>, <회복역본>, MBTC본은 “Матайн”(matain)로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또한 러시아어 성경은 ‘고린도서’(προς Κορινθίους)를 “к Коринфянам”(k korinfyanam)으로 표기하는데, <오늘의 몽골어 성경>과 <확장본>은 “Коринфосын”(korinfosin), “Коринф”(korinf)로 각각 표기하였다. 한편 <회복역본>과 MBTC본은 “Коринт”(korint)로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번역 과정에서 번역본과 저본과의 관계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첫째, ‘θ’를 ‘φ’로 전사하는 현상은 러시아어 성경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러시아어 성경이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몽골어 성경이 일반적으로 ‘θ’를 ‘т’(t)로 전사하는 등 전사를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현대 몽골어 성경 중 모든 역본이 ‘θ’ 대신에 ‘φ’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기에, 이런 현상을 몽골어 자체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성경 번역의 비교연구에서 형태나 표현에 관한 것이 많지만 음성에 관한 것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둘째, 현대 몽골어 성경이 러시아어 성경의 영향을 받되, 취사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인다. 현대 몽골어 성경의 역본들이 취사선택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나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번역의 후발 주자가 이전 역본을 참고할 때 어느 정도 자기주도성을 보인다. 현대 몽골어 성경에 대한 기존 연구는 영어 성경이 저본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은데, MBTC본의 경우 번역자마다 개인용 저본이 달랐고, 특히 번역 초고의 상당 부분을 번역한 몽골인 번역자가 러시아어 성경을 개인용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러시아어 성경의 영향이 컸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MBTC본이 “영어 번역인 NIV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고, NAS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을 번역의 모델로 삼았지만,<sup>25)</sup> 번역자마다 개인용 저본이 달라서 모델과 저본(혹은 집단용 저본과 개인용 저본)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현대 몽골어 성경 역본들 상호 간에도 번역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번역의 영향사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sup>26)</sup>

24) 러시아어 성경은 그리스어 성경의 ‘θ’ 2개 중 앞의 것은 ‘т’, 뒤의 것은 ‘φ’로 표기했는데,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2개 모두 ‘φ’로 표기하였다.

25)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211.

26) 영어 성경의 경우, 이전 역본과 후속 역본의 영향사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다.

## 2.4. 성경 번역의 저본과 번역 워크숍(workshop)

번역진은 몽골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과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처음부터 동역 관계로 출발했는데, 이들이 성경 번역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직역(直譯)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 현대 몽골 선교가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일반적으로 말해 선교사들은 몽골어를 충분히 숙달하지 못했고, 현지인들은 성서 언어, 성서 신학, 성경 번역학 등 신학적 소양이 부족했다. 일종의 아마추어 번역진을 구성한 셈이었다. 역설적으로, 성경 번역을 목적으로 했던 선교사들은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몽골성경번역위원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번역자들은 각자 이해 가능한 외국어 성경을 개인용 저본으로 하여 중역(重譯)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특정 역본을 저본으로 선정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개인용 저본을 선택하였다. 이런 저본들로 추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영어의 NIV본, 독일어의 현대 역본, 러시아어의 <구역>과 <새번역>, 일본어의 <개역>, 한국어의 『개역』 등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NIV보다 NAS에 가까운 저본들이 사용된 셈이다. 이중에서도 몽골인의 경우는 러시아어 <구역>, 선교사의 경우는 일본어 <개역>과 한국어 『개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론의 여지없이, 러시아어는 개방 직전까지 몽골의 제1외국어였고, 몽골인에게 가장 익숙한 외국어였다.

세계 선교 특히 성경 번역 사역에 있어서 유사 언어권 선교사의 장점이 강조되는데, 몽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엄밀한 진술이 필요하지만, 통속적인 차원에서는 몽골어, 일본어, 한국어 간의 유사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는 매우 유사하다.<sup>27)</sup> 따라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번역, 특히 성경 번역에서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28)</sup> 물론 언어 가운데 완전히 동일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언어 습득 단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고 기울여야 할 노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sup>29)</sup>

27) 가령 몽골어는 일본어와 한국어에 비해서, 동사의 부정사와 분사, 명사의 격 등이 덜 퇴화되었다.

28) 필자의 경우, MBTC본에 관한 필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지나친 평가가 있어서,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성경 번역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해명한 바 있다.

29)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것이 idiom(원어민 특유의 언어 [구사] 혹은 관용구)이다. 가령 관용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 관련 관용구도 한국어와 몽골어가 큰 차이를 보인다. 앵호사률은 양국어의 신체 관련 관용구를 5가지로 비교 분석하였다. 즉 양국어가 동일한 것, 한국어에만 있는 것, 몽골어에만 있는 것, 양국어에서 표현이 다르면서 의미가 같은 것, 양국어 의미가 다르면서 표현이 같은 것 등. 다음 논문을 볼 것. [배.] 앵호사률, “한국어와 몽골어의 신체 관련 관용구의 대조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3).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독일인,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주축을 이뤘는데, 독일인과 미국인 등 서구 선교사는 주로 모금과 행정을, 일본인과 한국인 등 비서구 선교사(혹은 아시아 선교사)는 주로 번역과 감수를 담당했다. 일본인과 한국인 가운데는 성경 번역 이외에, 성경 번역과 관련 있는 사전, 기독교 문헌 번역 등 문서 선교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직역 대신 중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번역진이 직역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1994년 후반 4개월간 요한복음을 원어로부터 직접 공동 번역하는 체험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성경 번역 전문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관련 언어에 대한 이해와 번역 경험에 기초하여 언어 감수자로서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워크숍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먼저 필자가 요한복음을 한 절씩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번역자들이 각자 순서에 따라 외국어 성경과 기존 역본을 참조하여, 자신의 번역문 견본을 제시했고, 순서가 다 돌아간 뒤에는 종합 토론을 거쳐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이런 공동 작업은 매우 보람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는(time-consuming) 만큼, 전체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는 워크숍을 중단하고 각자가 단독적으로 초고 번역에 돌입하였다.

### 3. 성경 번역

#### 3.1. 번역 과정

번역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원고 작성과 원어 대조 작업(3회 반복), 1차 공동 독회, 문법 및 문체 수정, 2차 공동 독회로 이뤄졌는데, 이를 합하면 9단계가 되는 셈이다. 특히 최종적인 문법 및 문체 수정 작업은 몽골 언어학자에게 의뢰했다. 선교사 번역자와 몽골인 번역자에 의해서 작성된 초고는 언어 감수자의 성서 언어 원문 대조 작업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교정된 결과는 몽골어의 문체와 가독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몽골어 번역자에 의하여 재수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확성과 자연스런 모국어 구현의 양극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었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의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번역의 홍보 및 수용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였다. 첫째, 몽골성경번역위원회 설립 후 얼마 뒤인 1995년에 설립된 몽골연합성경학교(Union Bible Theological College, Mongolia)는 당시 교과과정이 주로 <신구약전서> 권별 연구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수업에 번역 초고를 제공함으로써, 신학생들이 원고를 검토하고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구약 번역도 동일한 시도를 하였다. 신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용어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을 통하여 몽골인들 특히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초기 몽골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와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번역 과정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둘째, <신약전서> 출간 이전에 <마가복음>(1995년 추정) 및 <요한복음>(1995)을 쪽복음으로 발간하여 널리 반포했고, 피드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구약>[1차분](1998) 출간 이전에도 잠언(1997년 추정)을 쪽복음으로 발간한 바 있다.

### 3.2. 언어 감수

MBTC본은 특정 성경 번역 기관이나 성경 번역 전문 선교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성경 번역을 해 나갔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특히 선교사 번역자와 몽골인 번역자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절하는 것이 언어 감수자의 주요 임무였다. 일종의 화해자 역할이다. 언어 감수자가 봉착했던 문제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 번역자, 현지인 번역자, 언어 감수자 모두 공인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때 해결책을 제공한 것은 번역의 목표 즉 완벽한 성경이 아니라 ‘작업용 역본’을 추구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번역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기본 의미를 전달하는데 오류가 없다면, 언어 감수자는 번역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에코(Umberto Eco)의 책 제목대로, “번역은 타협”인 셈이다.<sup>30)</sup>

둘째, 언어 감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었는데, 선교사 번역자와 현지인 번역자 간에 문제와 해결책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선교사 번역자는 성경 이해는 강점이 있지만, 번역문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30) Umberto Eco, *Mouse or Rat?: Translation as Negotiation* (London: Phoenix, 2003).

낮았다.<sup>31)</sup> 흥미로운 사실은 선교사 번역자는 문제 발생 시 자신의 번역이 자신의 개인용 저본에 충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축자역 번역 태도에 가까웠다. 한편 현지인 번역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번역의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역시 흥미로운 사실은 현지인 번역자는 문제 발생 시 자신의 번역이 자연스러운 모국어로 된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의미전달역 번역 태도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번역의 목표 등 제반 여건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자의 배경에 따라 문제 해결 전략이 달랐다. 특히 ‘자연스러운 언어’(natural language) 문제가 거론되었다.<sup>32)</sup>

### 3.3. 자연스러운 언어 문제

번역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언어라는 문제는 번역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축자역보다 의미전달역이 자연스런 언어를 더 강조한다. 그러나 결과가 항상 의도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을 번역한 일본인 번역자는 <오늘의 영어 성경본>(Today's English Version)을 모델과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의미전달 중심의 자연스러운 몽골어로 된 번역을 추구했다. 그러나 막상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이 출간되자 보급이 잘 안 되었다. 당시 몽골에서 역본 종류를 막론하고 품귀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은 예외적으로 재고가 많았다.<sup>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기독교인들이 이 역본을 구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스러운 몽골어 번역을 추구한 역본인데도 역설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른 하나는 당시 몽골의 경제 형편에서 널리 통용되는 역본이 아닌 다른 역본까지 살 여유가 없었다.

영어 성경의 경우, 소위 축자역과 의미전달역, 혹은 자연스러운 언어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고 관련 연구도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번역자가 원어민인데 반해서, 선교지의 성경은 번역자가 선교사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같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번역자가 선교사이고 더구나 단독으로 선교사 주도적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의도와

31) 선교사들 가운데는 원문 대조 행간 성경(interlinear bibl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32) Hargreaves, *A Translator's Freedom: Modern English Bibles and Their Language*, 108-126.

33) 몽골성서공회 임시위원회, “몽골성서공회 임시위원회 회의록”(몽골성서공회 사무실, 울란바타르, 1999. 9. 28.), 1.

사뭇 달랐다. 이 사례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원어민인 현지인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비록 MBTC본이 선교사와 현지인의 협동 작업이라는 태생적 조건으로 인해 갈등 조정이라는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즉 선교사와 현지인이 초고부터 작업을 분담하고 결과를 교차 수정하는 등 원어민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sup>34)</sup>

### 3.4. 기타 성경 번역에서 고려할 사항

#### 3.4.1. 미흡한 점

MBTC본은 소기의 목적을 상당 수준 이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이영철은 몽골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번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였다. 먼저 몽골어가 시제, 양태, 상 및 사동과 피동의 다양한 표현, 재귀 소유격, 단수 2인칭 존대형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보다 번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를 운문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노력도 언급하였다.<sup>35)</sup>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지 않은 점, 특히 MBTC본 <신약전서> (<신구약전서>를 포함하여) 번역에서 미진했던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먼저 이영철이 언급했듯이, 성서 언어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의 태(voice), 법(mood), 상(aspect), 시제(tense)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제대로 번역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심지어 동사의 태, 법, 상, 시제는 번역의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도 보인다. 추후 성서 언어의 동사와 몽골어의 동사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와 언어 감수자를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번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성경 번역에서 시제보다 상이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데, 몽골어의 상은 동사 어미 뿐 아니라 복합동사 형태를 통하여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6)</sup>

또한 몽골어는 재귀 소유격(재귀 2격)은 물론이고 다양한 소사(particle)가 있는데, 소사는 단어의 어미와 더불어 미묘한 의미의 차(shade of meaning)를 전달한다. 러시아어는 몽골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러시

34) 이런 맥락에서 제일 선교사의 동역자였던 이창직과 같은 한국인 성경 번역자이면서 문사역자들의 인물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35) 이영철,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 84-89.

36) 가령 이영철이 예를 든 Rita Kullman의 문법책과 같이 외국인이 저술하였거나 외국어로 저술된 문법책에 소개된 것보다 더 다양한 용법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ita Kullman, *Mongolian Grammar* (Hong Kong: Jenco Ltd., 1996).



아어에도 소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성서 언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삼자의 소사 용법을 비교 연구한다면 더 수준 높은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sup>37)</sup>

이상에서 단어 및 문장의 차원을 논의하였다면, 단락(paragraph) 및 담화(discourse)의 차원도 언급할 것이 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형식들이 나타나는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가 제대로 번역되려면 문체는 물론이고 고유한 담화 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의 선교사 번역자는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몽골에 오기 전 일본에서 몽골어 담화 구조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MBTC본 번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한 번역 자원이 활용되지 못했다. 오늘날 ‘이야기하기’(story-telling)는 성경, 설교, 신학, 나아가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주목받는 주제인 만큼, 성경 번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오늘의 몽골어 성경본>이 널리 수용되지 못했지만, 그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3.4.2. 번역의 주체와 대상

번역에 있어서 주체 혹은 주도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선교지의 경우, 흔히 선교사가 단독으로 번역을 하거나 선교사의 주도 하에 현지인이 참여하는 등, 번역의 주도권을 선교사가 지닐 때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역의 주도권은 적어도 선교사와 현지인이 함께 가지거나 궁극적으로 현지인이 가져야 한다. 성경 번역 역사상, 성경 번역은 상황에 따라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선교 분열, 교회 정치, 신학 논쟁, 민족주의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었다.<sup>38)</sup> 여하튼 번역 주도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번역은 결과(output)가 중요한데, 최종적인 좋은 결과는 현지인에 의해서 가능하다.

번역의 대상도 중요하다. 성경 번역은 기존 신자가 중심이나 불신자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번역의 목표와 방식이 달라진다.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다양한 논쟁에 이런 관점을 도입한다면, 역본과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가령 최초의 현대 몽골어 성경인 <확

37) A. N. Vasilyeva, *Particles in Colloquial Russian*, V. Korotky and K. Villiers, trans. (Moscow: Progress Publishers, [n.d.])

38) 바포리스(Nomikos Michael Vaporis)는 오랜 역사를 지니며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하는 그리스정교회의 맥락 속에서 현대 그리스어 성경 번역의 역사와 쟁점을 논하는 가운데, 개신교 번역 선교사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성경 번역의 주도권에 관한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 중 하나이지만, 결국 현지 교회가 번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염두에 둘 사항이다. 몽골 교회도 역사가 흐름에 따라, 성경 번역의 주도권에 관한 입장도 달라질 것이다. N. M. Vaporis, *Translating the Scriptures into Modern Greek* (Brookline, Massachusetts: Holy Cross Orthodox Press, 1994), 122-143.

장본>은 당시 현대 몽골 선교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마련되었기에 불신자를 주 대상으로 삼았지만, MBTC본은 기독교의 인프라(infrastructure)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시작했기에 ‘기존 신자’와 ‘불신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도 차세대를 위한 번역, 통일을 염두에 둔 북한 주민을 위한 번역 등을 준비 중인데,<sup>39)</sup> 과연 누가 번역의 주체이고 대상이며, 기준 설정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3.4.3. 번역자 돌봄

흔히 번역은 반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반역자인 셈이고, 번역자도 반역자로서의 곤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성경 번역자는 일반 번역자가 경험하는 육체적, 정신적 곤경 이외에도 영적 책임감으로 인해 영적 곤경까지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 성경 번역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컨설팅도 시행된다. 그런데 그런 컨설팅이 번역을 넘어서 번역자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역만큼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도 드문데, 번역자 없는 번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자에 대한 돌봄이야말로 성경 번역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보든(Charles Roskelly Bawden)은 그의 책에서 19세기 몽골어 성경 번역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 초신자에 가까운 몽골인이 번역에 동원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바 있다.<sup>40)</sup> MBTC본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 특히 초기 몽골인 번역자들에 대해 영적 돌봄, 복지, 후속 조치, 인정, 기억 등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다고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선교지 상황도 유사한 형편이다.

## 4. 성경 번역의 유산

### 4.1. 성경 번역과 교회 일치와 연합

어떻게 MBTC본은 새로운 MUBS본이 되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과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관계에 대한 답변이기

39) 호재민은 차세대를 염두에 둔 뉴 미디어 성서 개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번역의 대상에 따라 번역의 목표와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 의식을 보인다. 호재민, “뉴 미디어 성서 개발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선교신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40) C. R. Bawden, *Shamans, Lamas, and Evangelicals: The English Missionaries in Siberi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도 하다. 현대 몽골 선교는 어느 선교지의 선교 못지않게 연합 정신이 강한 선교였다. MBTC본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연합 정신의 결과였다.

첫째, MBTC본은 선교 경쟁과 성경 번역이라는 맥락 속에서 출발했지만, 성경 번역을 위한 공동 기관을 설립하고 성경 번역을 공동 작업으로 수행하는 등 ‘번역의 일치’를 구현했다. 둘째, MBTC본은 몽골 국내외의 다양한 모금 등 협력을 통해 성경을 출간함으로써 ‘출판의 일치’를 구현했다. 셋째, MBTC본은 선교사와 현지인의 공감대를 통하여 몽골 국내외에서 널리 수용되어 ‘반포의 일치’를 구현했다. 특히 <신구약전서>는 봉헌식 당일 1만 부가 매진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MBTC본의 번역과 출간이 이뤄지던 동안, 한몽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재한 몽골 디아스포라가 증가했다. 그 결과 재한 몽골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재한 몽골인 교회, 귀국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몽골 내 몽골인 교회 등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했고, 성경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한 몽골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몽골성경번역위원회의 허가를 받고,<sup>41)</sup> 대한성서공회에 제작 의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내에서도 2002년 MBTC본이 출간되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낭비도 막고 성경 보급의 갈증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일이었다. 넷째,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현대 몽골어 성경 역본들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가졌고, 개정 시 판권을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갖는 조건으로 현대 몽골어 성경 역본들의 개정에 관심을 보였다.<sup>42)</sup> 이런 과정에서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발전적 해체를 하였고, 몽골 기독교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몽골연합성경학교를 거쳐 몽골성서공회에 MBTC본의 판권(저작권)을 넘겼으며, 이로써 MBTC본은 명실공히 몽골의 대표적인 성경인 새로운 MUBS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맡은 역할은 두 기관을 잇는 가교였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몽골성경번역위원회 사역에 언어 감수자로서 동참하다가, 1999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로부터 폐쇄 조치된 몽골성서공회의 재건을 위하여 세계성서공회 파견 몽골 대표 및 몽골성서공회 임시 총무직을 맡도록 제안을 받았다. 필자는 몽골성서공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몽골성서공회가 객관적인 연합 기관이 되도록 몽골성경번역위원회로부터 공식 사임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왔다. 따라서 필자는 MBTC본의 신약 번역 및 출간은 전 과정에 참여했지만, 구약 번역 및 출간은 막바

41) E-mail message from Kyo Seong Ahn to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MBTC (R. L.) (2002. 1. 2.); email message from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MBTC (R. L.) to Kyo Seong Ahn (2002. 1. 2.).

42) 몽골성서공회 임시위원회, “몽골성서공회 임시위원회 회의록” (몽골성서공회 사무실, 울란바타르, 1999. 9. 28.), 1. 이런 입장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어 감수 책임자인 다우드 소실로(Daud Soesilo)가 몽골성서공회를 방문 시 표명하였다.

지 단계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참여했다. 또한 필자는 재건된 몽골성서공회가 몽골 내 성경 번역 관련 개인 및 집단과 관계를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현지인 주도적 기관이 되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몽골성서공회와 몽골성경번역위원회의 관계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MBTC본이 새로운 MUBS본이 된 이후, 2004년, 2013년에 걸쳐 개정본 및 재개정본이 출간되었고, 이제 새로운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와 동역했던 이들도 오늘날 몽골성서공회와 동역을 이어가고 있다.

#### 4.2. 성경 번역과 토착화

한 민족(인종)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모국어 성경의 의미는 토착화, 민족주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되어 왔다. 현대 몽골 선교는 처음부터 선교와 교회의 일치 및 연합을 염두에 두고 출발했고, 비록 갈등과 분열도 없지 않았지만 선교사와 현지인 간에 연합 정신이 자리 잡았고 현지인의 주도권을 격려했다. 그 결과, 오늘날 몽골 기독교는 교회, 신학교, 몽골성서공회를 비롯한 기관사역 등에서 몽골인의 지도력이 정착되었고, 여타 구공산권 국가의 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몽골성경번역위원회는 이를 위해 연합 기관인 몽골 연합성경학교와 협력했고, 이런 연합의 경험은 몽골 목회자 연합 안수식 등으로 이어졌으며, 장차 몽골 연합 교회의 형성에 대한 기대도 남아 있다.

이런 현지인의 역량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뤄졌는데, 성경 번역 사역도 한 몫을 차지했다. 몽골인은 성경 번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논쟁을 해결해 나가는 데 목소리를 냈으며, 오늘날 몽골성서공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제 스스로 성서 원문에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되었다. 한국 기독교가 약 1세기에 걸쳐서 진행했던 과정을 몽골 기독교는 불과 한 세대 안에 마친 셈이다. 백년 전과 오늘의 상황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성서 사업은 선교의 시작이고 핵심이라고 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5. 결론

구공산권 붕괴는 세계 선교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구 공산권에 속했던 몽골도 이런 맥락에서 현대 몽골 선교가 시작되었고, 성경 번역은 주요

한 한 가지 분야인 동시에 인프라를 구성하였다. 선교 및 교회가 시작되면서, 곧이어 새로운 성경 번역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성경 번역이 갈등과 경쟁을 일치와 협력으로 바뀌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일치를 위한 노력이 더욱 큰 일치로 이어졌고 현지인의 지도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 현지인인 몽골인이 성경 번역에 동참하고 점차 주도권을 확대해갔다는 점, 그리고 몽골의 경우 번역상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성경 이외의 기독교 문서의 번역이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 몽골이 구공산권에 속했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용어 선정에서 이데올로기 문제가 나타났고 저본 선택과 번역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와 현지인 간의 동역 사역으로 번역을 할 때 갈등과 더불어 협력이 나타났고, 현지인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경 번역은 미진한 점도 있지만 전망이 밝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번역만이 아니라 번역자도 중시해야 한다.

<주제어>(Keywords)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 몽골성서공회본, 번역, 선교, 일치.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Version, Mongolian Union Bible Society Version, translation, mission, unity.

(투고 일자: 2018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18년 3월 12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3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대한성서공회 소개”, <http://www.bskorea.or.kr/> (2018. 1. 22.).
- 몽골성서공회 임시위원회, “몽골성서공회 임시위원회 회의록”(몽골성서공회 사무실, 울란바타르, 1999. 9. 28.), 1.
- “[사]아시아 언어 문화 연구원” <http://arilac.org> (2018. 1. 22.).
- 필자의 이메일 메시지
- [MBTC], “Terminology List”, Unpublished manuscript, November, 1994.
- Б., Баярмагнай[b. bayarmagnai], “Ариун Библийн Орчуулга Засварын Тайлбар Бичиг(ariun bibliin orchuulga zasvarin tailbar bichig)”(성경 번역 개정에 대한 설명문), 미간행수고, 2014.
- 고은이, “내몽골의 하나님 용어”, 『성경원문연구』 18 (2006), 130-141.
- 마끄마르덜거르, “몽골어 성경 풀이역(1990년) 및 축자역(2004년) 번역 평가: 읍기 1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 민영진, “Bible Translations for Asian Audiences: Nestorian Experiment in T’ang Dynasty China and Mongolian Equivalents for Deity”, 『성경원문연구』 18 (2006), 98-113.
-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76-199.
-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
-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 『성경원문연구』 11 (2002), 68-89.
-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4 (1971), 148-167.
- [배.] 앵흐사롤, “한국어와 몽골어의 신체 관련 관용구의 대조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3)
-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안중환 역, 『성경원문연구』 19 (2006), 200-214.
- 안교성, “성경 번역과 교회 연합: 성경 번역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정운 명예 총장 은퇴 기념 출판위원회 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27-145.
- 여병무, 강선화 편저, 『한몽사전』,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대학출판부, 2000.
- 이만열,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한국교회사의 의미”, 『한국기독교와 역사』 43 (2015.9.), 5-21.
- 이영철,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 『성경원문연구』 33 (2013), 77-91.

- 황예렘,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중국 초기 개신교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성경원문연구」 36 (2015), 231-251.
- Ahn, Kyo Seong, “Christian Mission and Mongolian Identity: The Religious,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 *Studies in World Christianity* 9:1 (2003), 103-124.
- Ahn, Sung Ho, “The Term Question in Korea 1882-1911, and its Chinese Roots: A Study in Continuity and Diverg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2011.
- Bawden, C. R., *Shamans, Lamas, and Evangelicals: The English Missionaries in Siberi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 Б. Дүгэрмаа(b. Duegermaa), *Эзэний Монгол Нэрс(ezeniy mongol ners)*, n.p., 2008.
- Eco, Umberto, *Experiences in Transl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0.
- Eco, Umberto, *Mouse or Rat?: Translation as Negotiation*, London: Phoenix, 2003.
- Hargreaves, Cecil, *A Translator's Freedom: Modern English Bibles and Their Languag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Kemp, Hugh P., *To Feel the Spirit: A History of the Mongolian Bible*, booklet; Auckland, New Zealand: [personal publication], 1997.
- Kullman, Rita, *Mongolian Grammar*, Hong Kong: Jenco Ltd., 1996.
- Vasilyeva, A. N., *Particles in Colloquial Russian*, V. Korotky and K. Villiers, trans. Moscow: Progress Publishers, [n.d.].
- Vaporis, N. M., *Translating the Scriptures into Modern Greek*, Brookline, Massachusetts: Holy Cross Orthodox Press, 1994.
- Vietze, Hans-Peter, *Wörterbuch Mongolisch-Deutsch*, Leipzig: Langenschneidt, 1988, 16-17.

<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the Translation of Modern Mongolian Bibles:  
from the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Version  
to the Mongolian Union Bible Society Version**

Kyo Seong Ah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Modern Mongolian mission was initiated as part of mission to post-communist countries which began with the fall of Communism in 1989.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opening of Mongolia, the question of a new Bible translation or revision was raised among expatriate missionaries and indigenous Christia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Bible translation works, especially focusing on peculiarities of the Mongolian case.

This study maintain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as an ad hoc consortium of Christians, expatriate and indigenous, in Mongolia in 1994 contributed to partly overcoming the factional spirit in emerging Mongolian Christianit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quarrel over Bible translation; and that the cooperation in translation ministry built on consensus developed to facilitate the maximization of resources available in the mission field at the time.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the history of missions as well as the Mongolian national history affected the process of translation in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influence of the terminology of basic Christian doctrines such as Ten Commandments, Lord's Prayer and Apostles' Creed on biblical terminology; and the ideological association of words due to the previous Communist rule and the way to dismantle the association - how, why and by whom. This study also unearthed that through the cooperation in translation ministry, Mongolian translators from the very beginning participated in the major Christian work for the Bible, which is the backbone of Protestant Christianity; contributed to making the MBTC Version natural; had a voice in decision making; and began to take initiative in Bible ministry. For the unity of Mongolian Christianity, the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handed over the MBTC Version to the Mongolian Union Bible Society, and thus the former evolved into a new MUBS Version. As a way of united work, the MBTC



Version fleshed out the spirit of unity in trans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and enhanced the leadership of nationals as well as triggering the indigenization process of Christianity in Mongolia.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is much to be desired: the need for a brave new version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original Biblical texts by national experts, and the consultation of both translations and translators.